

국내 최초 산업 안전 공익법인

현대차 그룹 협력사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MESSAGE



“현장의 안전을 통해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안경덕입니다.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우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람과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한 법적 요구 수준 이상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협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내 최초 안전 전문 재단으로서 기업의 핵심 가치는 안전이라는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지원 혜택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비용 **전액 후상**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비용 **전액** 지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후상** 지원
컨설팅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 지원



안전보건 우수기업 및 기여자 공로상 시상
총 4,500만원 지원



중대재해 유가족 장학금, 심리상담비 지원
최대 500만원 실비 지원



안전투자 대출시 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0만원 수수료 지원



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도보 5분)

버 스 : 창덕궁 정류장(도보 3분)

7025, 109, 151, 162, 171, 172, 272, 801, 6011

산업안전상생재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3층
T 02. 742. 7014~22 F 02. 742. 7018 H www.ispf.or.kr

중소기업 안전체계 구축비용 **100% 후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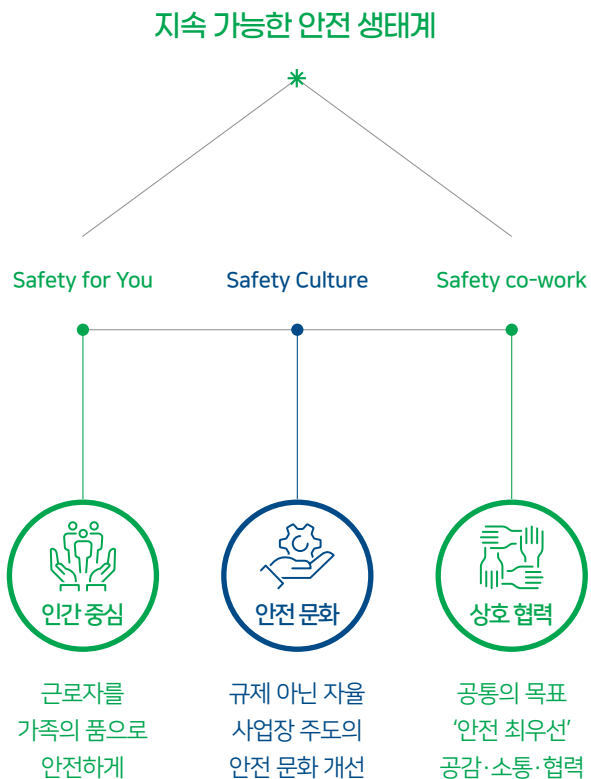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하세요!



산업안전상생재단
Foundation for Industrial Safety Partnerships

진정한 상생은
현장의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안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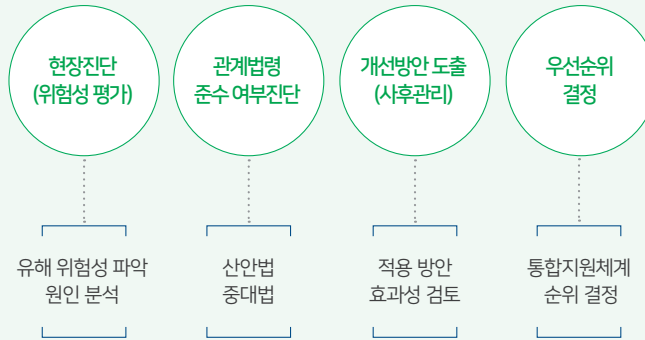
VISION



안전보건 통합 패키지 지원 사업 01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



2.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 스마트 안전기술 중 우수기술 선정하여 중소기업 도입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디자인 적용

3.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심화교육

4.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상생자금 조성 지원

- 중소기업 안전개선 투자를 위한 대출 시 신용보험수수료 등

안전 정보 및 자료 지원 사업 02

업종별 사고 사례, 안전 관계 법령 자료, 포스터 배포
· 최신 안전정보 및 안전보건 콘텐츠 정기적 제공

안전 관련 우수사례 세미나/토론회 개최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등 토론

장학후원사업 03

우수 중소기업 및 산업관리 개선 기여자 공로상 시상
· 안전 관리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여자 선정 포상 추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장학 사업
· 중소기업 산재근로자 자녀 학업지원을 위한 학업장려금 지원

산업안전 기술연구 용역 0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기술 개발 등 연구 수행
· 중소기업 상생방안 조사·연구 및 안전 신기술 개발

○접수문의: 산업안전상생재단 사업지원팀

- 전 화 : 02-742-7016 ~ 22
- 이메일 : onestop@ispf.or.kr
- ※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중 상시접수